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학교는 100 W 49 th Ave에 있었으며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과 가까웠다. 건물은 4~5개 정도가 있었고 이 중에서 주로 A building을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여유롭고 좋았다.
수업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Useful language, A to Z of Canadian Words, Reflective Writing, Cultural Studies 등 다양한 주제들을 공부했다. 수업을 할 때는 학교에서 준 바인더와 프린트를 사용하여 수업하였으며 가끔씩 저널을 쓰는 시간을 준 후 검사하기도 했다. 조별로 주제를 정해 발표하는 식의 수업이 많았다. 과제는 주로 학교 수업 내에서 끝낼 수 있는 정도였다.
필드트립	- Discover Vancouver - 밴쿠버 출신의 가이드 분과 함께 Gastown, Canada place, Granville island 등의 관광지를 구경하고 유인물 작성 - 준비물과 추가비용은 없었음 - 카약 - Deep cove에서 카약 타기 체험 - 추가비용은 없었으며 물에 젖을 수 있어서 여분의 옷과 수건 등이 필요했고 이외에 날씨에 따라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준비함 - Vancouver aquarium 견학 - Vancouver aquarium을 자유 견학하며 유인물 작성 - 준비물 및 추가비용 없음 - Museum of Vancouver 견학 - Museum of Vancouver 자유 견학 후 유인물 작성 - 준비물 및 추가비용 없음 - Whistler trip - Whistler에서 곤돌라 탑승 및 광장 구경

	- 준비물 및 추가비용 없음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전체적으로 날씨는 선선하고 좋았으나 일교차가 심했다. 1주 차에 비해 2주 차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었다. 여름 옷과 함께 위에 걸칠 옷과 긴 바지 등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안전	전체적으로 안전 상황은 좋았으나 평상 시에 짐이나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시내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홈리스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으므로 그 주변은 다니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귀가하면 더 안전할 것 같다.
숙소	샤워 시간 10분, 늦게 귀가하거나 저녁 식사에 늦을 때 연락을 드리는 것 이외의 규칙은 없었다. 홈스테이 시설은 좋았다. 방은 혼자 사용했으며 옷장, 스탠드, 책상, 침대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식사를 가족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보다 따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열쇠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 열쇠를 잘 챙겨야 했다. 학교에서 먹을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항상 만들어 주셨다. 집안일은 딱히 하지 않았으며 식사를 끝낸 후의 자신의 접시를 싱크대로 갖다 놓는 것 정도만 부탁하셨다. 모든 가족 분들이 친절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점심 식사는 대부분 홈스테이 맘이 준비해주신 샌드위치와 학교 내의 서브웨이나 팀 홀튼 등의 식당을 이용했고, 저녁은 주로 외부 식당에서 먹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미리 대충의 가격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메뉴에는 tax와 팁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 적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결제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식당은 다 괜찮았으며 직원들이 모두 친절했다.
교통	학교에서 받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주로 skytrain과 버스를 사용하였다.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나라와 큰 차이가 없어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가끔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 태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경우가 있었다. 버스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다소 늦는 경우가 많았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450000	점심, 저녁식사, 카페 등
쇼핑	350000	기념품, 옷 등
여행	200000	입장료 등
합계	10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어떻게 가야하는 지를 미리 조사한 후에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홈스테이 집에서의 규칙이나 생활 등이 모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고 궁금한 것이나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홈스테이 분들이나 학교의 홈스테이 사무소 분들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출국 전에 학교에서 알려준 홈스테이 가족 분들의 연락처를 통해 미리 규칙 등을 물어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입국 심사를 할 때 질문을 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폰에 미리 사진이나 자료 등을 모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국보다 화장실을 찾는 것이 힘들었다. 지하철역에도 화장실이 없었다. 그래서 식사를 했던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다양한 옷을 챙겨서 가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았다. 홈스테이 분들도 모두 친절하셨으며 음식도 입에 맞았고 날씨도 좋았다. 그리고 거의 매일 열심히 밴쿠버 주변을 돌아다녔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 일본에서 온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좋았고, 영어로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며 영어 말하기 실력이 조금이나마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 수업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서는 가기 힘든 먼 곳들도 학교에서 같이 여행을 가니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었다.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는 유일하게 홈스테이를 하는 어학연수이다. 다른 친구들과 얘기해봤을 때 홈스테이가 어학연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는 것을 느꼈다. 학교에서부터의 거리부터 가족 구성원들, 주변의 환경, 점심 준비, 집에서의 규칙 등 자잘한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다. 캐나다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 이 점을 유의하고 간다면 조금이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고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 어학 연수를 다녀오며 느꼈던 점은 학교가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었다. 특히 교통비가 지원되어서 부담 없이 밴쿠버의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며 구경할 수 있었다. 교통비 외에도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어서 편하게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해외 교환 학생이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카약	퀸 엘리자베스 공원
	
발표 자료 준비	English bay beach
	
Whistler	Closing Ceremony